<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

“ 석유화학 M&A와 세계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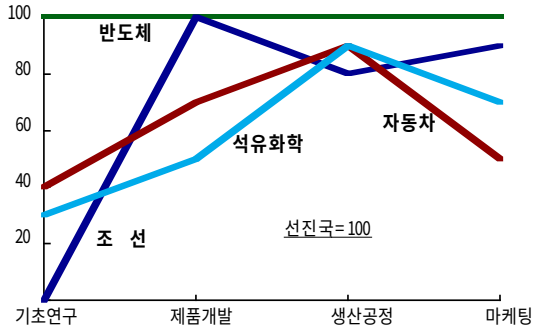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3위이다. 에틸렌 생산능력이 1999년 기준 500만톤을 넘어섰으며, 합성수지 생산능력도 900만톤에 근접하고 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1960년대 공업화 정책을 필두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지 30여년만에 세계 3위로 올라섰으니 대견스럽기 짝이 없을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선 지금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어느 산업의 생산능력이 세계 3위를 넘볼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은 대한석유공사(SK)의 나프타 크래커(NCC)가 건설된 지 30년만에 세계 3위로 올라서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했다. 1980년대 말까지 에틸렌 생산능력이 115만톤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년만에 에틸렌 생산능력을 400만톤, 아니 400% 확장했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최단기간의 확장 기록일 것이다. 중국도 10년동안 한국과 같은 투자확대를 시현하기는 쉽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나 석유화학 생산능력 세계 3위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고, 오히려 골치아픈 존재로 인식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모두 공급과잉을 지적할 것이다. 소화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재벌들의 신증설 경쟁이 공급과잉을 불러왔고, 자랑스러워야 할 세계 3위가 전혀 유쾌하지 않은 까닭이다.

SERI의 경쟁능력



여기에 연구개발 부재와 사용원료의 경직성, 국제유가 흡수능력 저하, 마케팅력 저하에 따른 중국 위주의 편향수출, 국내공급 및 가격 담합, 가동률 조절을 회피하는 밀어내기 수출 등을 고려하면 과연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장래에 희망이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현상을 고찰한 결과 플랜트 운영능력(오퍼레이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문이 낙후돼 있어 포트폴리오를 단행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충고했다. 취약부문의 개선 및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화학산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기초연구는 선진 화학기업의 40% 수준으로 신물질 개발, 신공법 개발, 프로세스 및 생산공법 개량능력이 크게 열위를 보이고 있고, 원료도 조달능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원료 다양성은 문제가 심각하며, 마케팅은 기술서비스가 선진 수준에 근접할 뿐 수요제품 개발능력 및 시장 개척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화학경제연구원은 기술서비스가 우수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은 플랜트 운영기술 하나 뿐이다. 운전기술 수준 및 코스트 절감도가 선진수준에 근접해 있고, 그레이드 대응능력은 약간 미흡하며, 공정합리화는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 종합적으로 선진 화학기업의 90%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화학산업 전문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수준이 높고, 부산물을 열원으로 사용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등 구체적인 문제까지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수긍이 간다.

결론적으로 플랜트 운영능력 하나만을 가지고 에틸렌 생산능력 500만톤을 유지·발전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성장·발전할 수 있으며, 결국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해결책의 하나로 사업별 포트폴리오를 권장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갈기갈기 나눠 있어 규모화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생산을 2-3개로 통합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생산의 규모화는 대세이고 국제경쟁력의 원천이다.

<화학저널 2000/4/3>